

현장시선



이 신 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물론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져있어 아쉬움이 크지만 법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다. 법의 개정은 변화의 시작이고, 그 변화의 결과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되도록 주민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과 도의회, 도지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하면 4년에 한 번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국회의원을 뽑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주

관행과 경험을 벗어나 다양한 주민자치를 기대하며

민자치까지 실행돼 지방자치도 건강하게 성숙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구성돼 제32호 법률로 만들어져 온 것이다. 그 후 1956년 2월, 1958년 12월, 1960년 11월, 1961년 9월(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88년 4월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다 작년 12월 9일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 단체자치에 집중됐던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의 권리와 참여 확대, 지방의회 기능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 변화된 상황에 필요한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법 조항에 반영됐다. 행정체제와 주민자치에 조화를 이뤄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 행정체제가 잘 정비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 서비스를 행정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에 주인이 되는 것이다. 행정은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만들고 인력을 지원해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주민자치 발전은 “참여”이다.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핵심이기에 행정이나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협력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들도 지역도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 조직에 대한 부분이다. 마을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대표성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구성에 보면 18세 이상

읍면동 주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읍면동에, 성별, 지역별, 직능별, 계층별로 대표성을 확보하게 돼있기에 마을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을 바래본다. 둘째, 마을 자치규약이나 법규에 대한 부분이다. 마을 자치규약이나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마을경제에 대한 부분이다. 마을 자치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등 마을의 경제조직을 만들고 주민 참여예산이나 마을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 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주민주권 등 마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마을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때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쉽고 편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의 꽃은 피지 않을 것이다.

사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강력히 대처해야

도심지에서 벗어나 외곽지를 다니다보면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얼마전 제주도 한림지역 간선도로에서 지선도로로 들어서자 도로변에 쌓인 폐기물이 눈에 띄었다. 여러가지 쓰레기와 함께 덩치 큰 냉장고도 보였다. 단순히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눈에 띄었다. 마치 습바꼭질 하듯이 생활폐기물을 곳곳에 버리면 치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물레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해마다 수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억 7200만원을 투입해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942t이 수거 처리됐다. 2019년 1125t, 2018년 718t으로 각각 2억8600만원, 2억 82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다. 폐기물은 대부분 폐기구와 폐가전제품 등이다. 그렇다고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한 단속 실적이 좋은 편도 아니다. 2019년 95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4960만원, 2020년에는 842건에 1억183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를 물려봐야 불법 투기 처리비용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민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행정의 단속이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70건에 250만원, 2020년 65건에 198만원 지급에 그쳤다. 포상금을 대폭 올려서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과태료도 과할 정도로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상 배출할 경우 많아야 2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이걸 아끼려고 불법 투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가. 생활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단속 실적이 좋은 편도 아니다. 2019년 958건을

'불청객' 팽생이모자반, 조기 수거 총력을

제주바다 '불청객'인 팽생이모자반이 예년보다 두 달 일찍 유입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3월 이후 제주에 유입됐던 팽생이모자반이 연초부터 연안 곳곳에 쌓이면서 수거에 비상이다. 팽생이모자반은 조업중인 선박 스크류에 걸려 취와 함께 해안경관도 망쳐 조기 수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골칫덩어리다. 팽생이모자반은 지난 14일 한경면 용수포구에서 처음 목격된 후 현재 동부지역과 서부 해안 전역에 유입됐다. 제주수산연구소 측은 중국 산둥반도 인근에서 발생 후 강한 북서풍 영향으로 전남 신안과 제주로 유입됐고, 당분간 계속 제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제주로 물러드는 엄청난 유입량이 문제다. 연간 수거실적을 보면 2016년 2441t, 2017년 4407t, 2018년 2150t, 2019년 860t에 이어 작년엔 5186t에 달

할 정도다. 제주연안에 밀려드는 많은 양 외에도 해안에 쌓이면 심각한 악취와 미관 저해, 인근 주민·업체 교통 등 2차, 3차 피해도 큰 걱정거리다. 행정의 조기 수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당장 도가 처리대책 본부를 가동, 읍면동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키로 했다. 도 대응은 팽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맡는 현장대응반 역할에 달했다. 팽생이모자반이 워낙 넓은 지역에 많은 양이 유입된 데다 부피·무게도 예상을 초과해 대규모 인력·장비를 일시에 투입하는 한 효율을 내기 어렵다. 도는 팽생이모자반 수거에 효과를 낼 정도의 많은 예산·인력을 투입하는 조비상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 '짚뭉치' 예산과 인력은 수거를 하더라도 제 효과를 못보는 상황을 맞기 십상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현장대응에 집중하는 행정으로 다가올 행락철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열린마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잊지 마세요



박 국 진
제주세무서장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안내한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또는 사업자 가구에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노동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

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생활 복지 지원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혜누락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연간 2회이며 상반기(1-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에 대해서 2022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제주세무서 법인세과(☎064-720-5402-8, 5422-9)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내 사업자 모두 어려운 여건 하에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정 기후위기 인식 한계

기후변화 정도에서 머물러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기후위기 인식이 여전히 '기후변화' 정도에 머물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강 위원장은 최근 도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 이에 강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또는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촉구. 이태윤기자

제주은행 주가 상승 주목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설 부인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여 주목. 네이버는 지난 19일 언론에 보도된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 검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제주

은행 인수를 검토한 바 없으며 관련 협의를 전혀 진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21일 제주은행 주식 종가는 전날보다 7.88% 오른 4585원으로 장을 마감.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미식이 여전히 '기후변화' 정도에 머물며 주가가 올랐다"며 "아니 댄 굴뚝에 연기날까" 하는 심정으로 주식을 사면 위험하다"고 당부. 고대호기자

AI예방 방역활동 총력전

○...서귀포시가 최근 성산읍 오조리·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연속 검출됨에 따라 방역활동에 총력전을 전개. 서귀포시는 검출지점 반경 10km 내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12농가와 닭 9만4000여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농장 방역과 철새도래지 주변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소독하는 등 순차 대응.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방역과 가금농장 차단방역 등을 통해 AI청정지역을 사수한다는 계획. 현영종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증화(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22일
아들 김승찬, 며느리 고대순, 승환, 현공임, 승규, 이향례, 딸 김명순, 명숙, 사위 양상훈, 정숙, 조요한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안중김공 황수(향년 7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22일
부인 김경자, 딸 김보람, 가람, 사위 이지호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